

2026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데살로니가전후서

메시지 7

사도 바울의 본

성경: 살전 2:1-12

[살전 2:1-12]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2)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3) 우리의 권유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4)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5)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번도 아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6)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7)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같이 하였습니다. (8) 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 형제님들,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10)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나무랄 데 없이 처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11)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 (12)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I. 사람들을 목양하는 최상의 길, 곧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양하는 최상의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러서 주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조성하시도록 온전히 길을 내어 드러야 한다 — 살후 3:9.

[살후 3:9]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의 본이 되어,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A. 주 예수님은 아버지를 가장 풍성한 은혜와 가장 달콤한 사랑으로 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분이시다 — 요 6:57, 사 7:14-15, 요 5:19, 4:34, 17:4, 14:10, 24, 5:30, 7:18, 눅 22:27, 마 20:26-28.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사 7:14-15] 그러기에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15)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까지, 그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요 5: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 4: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 17:4]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요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 14:24]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 5: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 7:18]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눅 22:27] 누가 더 큼니까? 상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마 20:26-28]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27)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2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 B. 주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의해 강권되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더욱 많이 하기위하여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그분에게서 배우라고 명령하셨다 — 마 11:28-30, 비교 엡 4:20-21, 고전 15:58.

[마 11:28-30]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엡 4:20-21]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고전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 C.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재생산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본으로 남기셨다고 말했다 — 벰전 2:21.

[벰전 2: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 D. 베드로는 그와 같은 장로들에게 믿는 이들 위에 균림하듯 하지 말고, 양 떼의 본이 되라고 명령했다 — 벰전 5:1-3.

[벰전 5:1-3]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3)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균림하듯 하지 말고, 양 떼의 본이 되십시오.

- E. 요한은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하셨고, 지 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요일 4:17, 비교 요일 3:3, 7.
 [요일 4:17]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일 3:3] 그분께 이 소망을 둔 사람마다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합니다.
 [요일 3:7]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미혹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의를 실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같이 의롭습니다.
- F.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며 사는 본이었다 — 딤펴전 1:16, 빌 1:19-21 상, 갈 6:17.
 [딤펴전 1:16]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빌 1:19-21 상]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갈 6:17]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 G.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라고 명령했다 — 딤펴전 4:12.
 [딤펴전 4:12]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 H.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 자신이 선한 행실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을 건강한 말로 말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의 공급이 되게 하라고 명령했다 — 딤펴전 2:7-8, 요 6:63, 요일 5:16 상.
 [딤펴전 2:7-8] 모든 일에서 그대 자신이 선한 행실로 본을 보이고, 가르침에 부패함이 없고 정중하다는 것을 보이고, ⁽⁸⁾ 흠잡을 데 없는 건강한 말을 하여,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어 부끄럽게 되도록 하십시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일 5:16 상]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 I.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했다 — 엡 5:1, 마 5:48.
 [엡 5:1]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 5:48]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J.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했다 — 고전 11:1, 4:16, 살전 1:5-6, 살후 3:9, 빌 3:17.

[고전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고전 4:16] 그러므로 내가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살전 1:5-6]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⁶⁾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살후 3:9]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의 본이 되어,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빌 3:17] 형제님들,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이들을 눈여겨보십시오.

II. 바울은 자신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도들은 그들이 전파한 기쁜 소식의 본이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 살전 1:5 하.

[살전 1:5 하]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A.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일이다. 당신의 존재가 바로 당신이 하는 일이다 — 요 5:19, 6:57, 빌 1:19-26, 행 20:18-35, 마 7:17-18, 12:33-37.

[요 5: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빌 1:19-26]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²²⁾ 그러나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것이 나의 일에 열매가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²³⁾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지만, ⁽²⁴⁾ 내가 육체에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²⁵⁾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²⁶⁾ 이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와 내 안에서 넘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행 20:18-35]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줄곧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¹⁹⁾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닥친 시련도 겪었습니다. ⁽²⁰⁾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²¹⁾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²²⁾ 보십시오, 이제 나는 영 안에 매이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²³⁾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일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²⁴⁾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25)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26)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27) 왜냐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29) 나는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 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0)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2)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33)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34)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손으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35) 내가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 7:17-18]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 12:33-37] 나무도 좋고 그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그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십시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34) 독사의 자손들이여, 여러분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35) 선한 사람은 그가 쌓아 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가 쌓아 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36)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 날에 낱알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37)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B. 우리는 사도들의 본을 따라 일보다 생명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요 12:24, 고전 4:12.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고전 4:12] 또 우리는 직접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며 수고합니다. 우리는 욕설을 들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견뎌 내고,

III.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공급하는 본이었다 — 딤후 1:16, 4:12, 롬 8:16.

[딤후 1:16]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이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딤후 4:12]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A.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가 주님을 본 일과 주님이 장차 그에게 나타나실 일에 그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 — 행 26:16-19, 비교 행 1:8, 23:11, 20:20, 20:31.

[행 26:16-19]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17)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 보내는데, (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행 1:8]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행 23:11]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엄숙히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행 20:20]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행 20: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B.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곧 그의 생활과 본과 목표와 비결로 취했다 — 빌 1:19-21 상, 2:5-16, 3:7-14, 4:11-13.

[빌 1:19-21 상]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빌 2:5-16]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10)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14)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16)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빌 3:7-14]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¹⁴⁾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빌 4:11-13]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¹²⁾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¹³⁾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C. 바울은 그의 영 안에 살고 봉사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에 의해 행하고 그 영에 이르도록 씨를 뿌리고 그 영을 공급했다 — 갈 5:16, 25, 6:8, 고후 3:6, 고전 2:15, 고후 2:13, 롬 1:9, 8:16.

[갈 5: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갈 5: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니다.

[갈 6: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영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2:15]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고후 2: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 D. 바울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고후 1:9). 이것은 그가 세상에서 처신 할 때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고후 1:12)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과 같은 일련의 일들을 포함 한다(고후 1:18-20).

- E.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여지고, 그분의 영으로 기름 부어지고 도장 찍히며, 또 그분께 포로가 되고 정복 당하며 이끌려 그분의 향기를 뿌린다 — 고후 1:21-22, 2:14-16.

[고후 1:21-22]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²²⁾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고후 2:14-16]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¹⁵⁾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¹⁶⁾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 F.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만했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자연히 그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쓰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편지들로 만들었다 — 고후 3:3-6.

[고후 3:3-6]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5)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 G.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로 주입되어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추었다. 이 사역은 그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다 — 고후 3:7-11, 18, 4:1, 3:6, 5:18-20.

[고후 3:7-11] 더구나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영광 안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 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 (8)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9) 유죄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10) 이런 점에서 이전에 영광스럽던 것도 더 뛰어난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1) 없어져 가는 것이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길이 남아 있는 것은 더욱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4:1]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후 5:18-20]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19)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 H. 바울은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주 영에게서 비롯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 고후 3:16-18.

[고후 3:16-18]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I. 바울이 살고 행한 모든 것은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몸을 위한 것이었다 — 롬 12:4-5, 고전 12:12-27, 엡 4:1-6, 15-16, 골 2:19.

[롬 12:4-5]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고전 12:12-27]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4)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입니다. (15)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16)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7)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입니까?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19)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20)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21)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2) 그럴 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23) 우리는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지만,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25) 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26)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27)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엡 4:1-6]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2)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5)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엡 4:15-16]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IV.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산 것으로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먹임으로써 믿는 이들에게 합당한 본이었다 — 살전 2:1-12, 고후 1:23-2:14, 28-29, 고전 9:22, 행 20:28.

[살전 2:1-12]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2)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3) 우리의 권유는 속임수나 두려움이나 간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4)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5)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번도 아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6)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7)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젓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같이 하였습니다. (8) 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⁹⁾ 형제님들,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¹⁰⁾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나무랄 데 없이 처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¹¹⁾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 ⁽¹²⁾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후 1:23-2:14] 내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시도록 하나님을 나의 혼을 반대하는 증인으로 부릅니다. ⁽²⁴⁾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후 2:1)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슬픔을 지닌 채 또다시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²⁾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슬픔을 겪은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³⁾ 내가 전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은 내가 갈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슬픔을 얻지 않으려는 것이요,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⁴⁾ 내가 많은 환난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더욱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⁵⁾ 그러나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⁶⁾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대부분이 내린 그 벌로 충분합니다. ⁽⁷⁾ 그러니 여러분은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러한 사람이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⁸⁾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하는데,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⁹⁾ 또한 내가 그 편지를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여러분의 인정받은 품성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¹⁰⁾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¹¹⁾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¹²⁾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¹³⁾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¹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고후 11:28-29] 이 밖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두더라도,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²⁹⁾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고전 9:22]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행 20: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 A.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도들의 복음 사역은 단지 말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생활, 즉 성령 안에 있고 믿음의 확신 안에 있는 생활로 수행된 것이었다 — 살전 1:5.

[살전 1:5]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B.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을 따르게 되었으며, 주님을 자신들의 본으로 삼게되어 다른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 살전 1:6-7, 살전 2:14.

[살전 1:6-7]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7)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살전 2:14] 형제님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C.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믿는 이들에게로 들어간 것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안으로 복음을 주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살전 1:5, 9, 2:1.

[살전 1:5]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살전 1:9]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우리에게 관한 일, 곧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로 들어갔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려 주기 때문이며,

[살전 2:1]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1. 사도들은 분투하며 하나님의 담대함 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했다 — 살전 2:2.

[살전 2:2]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2. 사도들에게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이 없었다 — 살전 2:3.

[살전 2:3] 우리의 권유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3.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시험받고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것, 곧 그들의 복음 전파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검사하시고 시험하셨다 — 살전 2:4, 시 26:2, 139:23-24, 고후 1:12, 6:6, 7:3.

[살전 2:4]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시 26:2] 오, 여호와님! 저를 살피시고 단련하시며 / 저의 속부분과 마음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시 139:23-24]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24)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후 1: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후 6:6] 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

[고후 7:3] 내가 여러분을 유죄판결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정도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4. 사도들은 한 번도 아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었다 — 살전 2:5.
[살전 2:5]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번도 아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 a. 탐욕의 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거나 말씀에 불순물을 섞는 것이다 — 고후 2:17, 4:2.
[고후 2:17]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고후 4:2]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으며, 진리를 나타내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합니다.
 - b. 이것은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경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 딤후 6:5, 딤후 1:11, 벨후 2:3.
[딤후 6:5] *또* 생각이 썩어 진리를 잃어버림으로써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딤후 1:11] 그들의 입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온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벨후 2:3] 그들은 탐욕을 품고서, 지어낸 말로 여러분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멸망도 속히 닥칠 것입니다.
5. 사도들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 살전 2:6 상, 갈 1:10.
[살전 2:6 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갈 1:10]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닙니다.
 - a.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에게 실지적인 시험이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로 사로잡히고 손상되었다 — 비교 삼상 15:12.
[삼상 15:12] 사무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와서는 다시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 b. 천사장의 타락은 영광을 추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그의 영광을 추구함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되었다.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되었다. 누구든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탄의 추종자이다 — 겔 28:13-17, 사 14:12-15, 마 4:8-10.
[겔 28:13-17] 너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었다. 온갖 보석이 너를 덮었으니, 곧 홍옥수와 황옥과 금강석과 귀감람석과 마노와 벽옥과 청옥과 홍옥과 비취옥과 금이다. 정교하게 만든 네 손북과 피리가 네가 창조된 날에 너를 위해 준비되었다. (14) 너는 *꺾*을 덮는 기름부음 받은 그룹이었다. 정녕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는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어 다녔다. (15) 너는 창조된 날부터 네 길들이 온전하였는데 결국 네 안에서 불의가 발견되었다. (16) 네 교역이 번창하자 네 안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결국 너는 죄를 지었다. 너 덮는 그룹아,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부터 사라지게 하였다. (17)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네 마음이 높아지고, 네

광채 때문에 네 지혜를 부패시키니, 내가 너를 땅으로 내던져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사 14:12-15]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네가 / 어찌하여 잘려 나가 땅에 쓰러졌느냐? (13) 너는 네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 내 보좌를 높이리라. /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15) 그러나 너는 스올로, /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리라.

[마 4:8-10]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말하였다. (9) "그대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1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주 그대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c.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우리의 유용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 비교 요 7:17-18, 5:39-44, 12:43, 고후 4:5.

[요 7:17-18]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8)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요 5:39-44]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40)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42)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43)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여러분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44) 여러분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 12:43]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던 것이다.

[고후 4: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 6.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권위를 주장하거나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 살전 2:6 하.

[살전 2:6 하]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 a. 그리스도인의 일에서 권위나 존엄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일을 손상한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존엄을 버리셨고(요 13:4-5),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전 9:12).

[요 13:4-5]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어 걸옷을 벗어 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직접 허리에 동여매셨다. (5)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허리에 동여매신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셨다.

[고전 9:12]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런 권리를 나누어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 b. 우리가 이러한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치명적인 병원균, 곧 지위를 차지하려는 세균을 죽일 것이다 — 마 20:20-28.

[마 20:20-28]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와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하였다. ⁽²¹⁾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님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²²⁾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시자,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²³⁾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잔을 마실 것이지만,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²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자, ⁽²⁵⁾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²⁶⁾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²⁷⁾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²⁸⁾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7. 사도들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고 열렬히 사랑하는 것같이 믿는 이들을 보살피고 열렬히 사랑했다 — 살전 2:7-8, 비교 갈 4:19, 사 49:14-15, 66:12-13.

[살전 2:7-8]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같이 하였습니다. (8) 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 4: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사 49:14-15]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¹⁵⁾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 설령 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사 66:12-13]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나 이제 그 성에 / 평화를 강처럼, / 민족들의 영광을 / 넘치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리니 / 너희는 젖을 빨고 업혀 다니며 / 무릎에서 뛰놀리라. ⁽¹³⁾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 나 너희를 위로하리니 /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 a.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유쾌한 사람이라는 것, 곧 어떤 일에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 b. 우리의 타고난 인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의 실재인 주님의 임재라는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사람들을 보살피어야 한다.
- c. 보살피는 것은 보양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람들을 보양하는 것은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다 — 엡 5:29.

[엡 5:29]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피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8.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었다 — 살전 2:8.
- [살전 2:8] 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a.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는 것(살전 2:3-6, 10)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7-9, 11 절)은 복음을 그들 안으로 주입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 [살전 2:3-6] 우리의 권유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번도 야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⁶⁾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 [살전 2:10]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나무랄 데 없이 처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 [살전 2:7-9]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같이 하였습니다. ⁽⁸⁾ 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⁹⁾ 형제님들,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 [살전 2:11]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
- b.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뿐 아니라 자기 자신, 곧 자신의 존재까지도 기꺼이 소비하고자 했다 — 고후 12:15.
- [고후 12: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9. 사도들은 자신을 아버지로 여겨,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곧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행함을 갖도록 권유하였다 — 살전 2:11-12.
- [살전 2:11-12]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 ⁽¹²⁾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